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5. 라오스 ICT 환경 분석

■ 유태경* · 이세라**

1. 개요

라오 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이하 '라오스')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한반도의 약 1.1배에 해당하는 236,800km²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서쪽으로는 태국 및 미얀마를 접하고 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수력자원, 산림자원, 석회석, 구리, 금, 보석류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라오스는 1975년 건국한 이래, 지금까지 라오 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이 지배하는 일당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국원이 국가원수인 대통령,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을 겸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1986년 자본주의의 도입 이후 대외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¹⁾

정치적 환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라오 인민혁명당을 견제할 만한 조직화된 야당이 없고, 시민 사회도 부재한 것으로 평가된다.²⁾ 또한,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유태경 인턴연구원, (043)531-4399, taeyou@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이세라 연구원, (043)531-4323, sera8389@kisdi.re.kr

1) KOTRA 국가정보홈페이지(<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4>)(검색일: 2018.6.15)

International, TI)에서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살펴보면, 라오스는 100점 만점에 29점으로 180개국 중 135위인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특히 라오스 지도층의 부패 근절 노력에도 CPI는 2016년(176개국 중 123위) 대비 12단계 하락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제적인 규모로 볼 때 라오스는 2016년 기준, 인구 약 650만 명, 1인당 GDP는 2,027달러인 작은 시장이다. 또한, 전형적인 소비국가로 제조업 발달이 미약해 소비재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체 수입의 61.2%가 태국으로부터 이루어지며, 중국(18.88%), 베트남(10.37%)으로부터의 수입도 상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제외한 라오스 접경 3국(태국, 중국,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90.4%를 차지할 만큼 경제적으로 상당히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오스는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64%이며, 최근 3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이 6% 이상인 ASEAN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시장이다. 2013년에는 15년간의 협상 끝에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에는 ASEAN+3 정상회의³⁾의 의장국으로 동아시아 국가 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RCEP) 강화와 정치·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를 이끌었다.

2016년 취임한 6대 국가원수 분냥 워라췌(Bounhang Vorachit) 정부는 같은 해 6월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탈피를 위한 경제발전 도모,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연계한 인적 자원 개발, 자연재해 등 환경 영향 저감 등 3개 거시 성과 목표를 구

2)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의 2018년 자유도 지수(Freedom Index)에 따르면, 라오스의 자유도 상태(freedom status)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not free)이며, 통합 점수는 100점 기준 12점을 기록하였다(0=least free, 100=most free). 2002년 이후 매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개최하는 정상회담이다.

성하고 세부 달성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BMI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Cambodia, Laos and Myanmar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7」 보고서 내용 중 라오스 ICT 내용을 발췌하여 ICT 환경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라오스 ICT 현황 분석

(1) ICT 발전 현황

201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발표한 ICT발전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를 살펴보면, 라오스는 전체 176개국 중 139위(통합지수 2.91)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발전지수의 연간 변화 추이에 있어, 국가 순위가 5위 상승(144위→139위)하고, 통합 지수가 0.47 상승(2.91→2.43)하여 전체 ICT 발전지수에 있어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이룩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IDI 세부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접근성(Access) 지수 또한 국가 순위 140위로, 전년 대비 3위 상승하였고 지수 또한 3.17에서 3.47로의 상승을 보여주었다. 활용능력(Skills) 지수도 2016년보다 상승하여 3.78의 136위를 차지하였다. 라오스는 특히 이용도(Use) 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진전을 보였는데, 1.11(149위)의 전년보다 진전된 1.90(132위)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라오스는 국가 순위에서 18위를 상승하면서, 해당 부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과를 이룩한 국가 2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IDI 통합지수는 평균 4.83을 기록하며 전 세계 평균(5.11)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 또한 세 가지 항목 모두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접근성 지수는 전 세계 평균(5.59)보다 0.32 낮은 5.27이다. 이용도 지수는 전 세계 평균(4.26)보다 0.27 낮은 3.99를 기록하였으며, 활

용능력 지수 또한 전 세계평균(5.85)보다 0.2 낮은 5.65를 기록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선진국에 해당하는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지역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라오스는 해당 선진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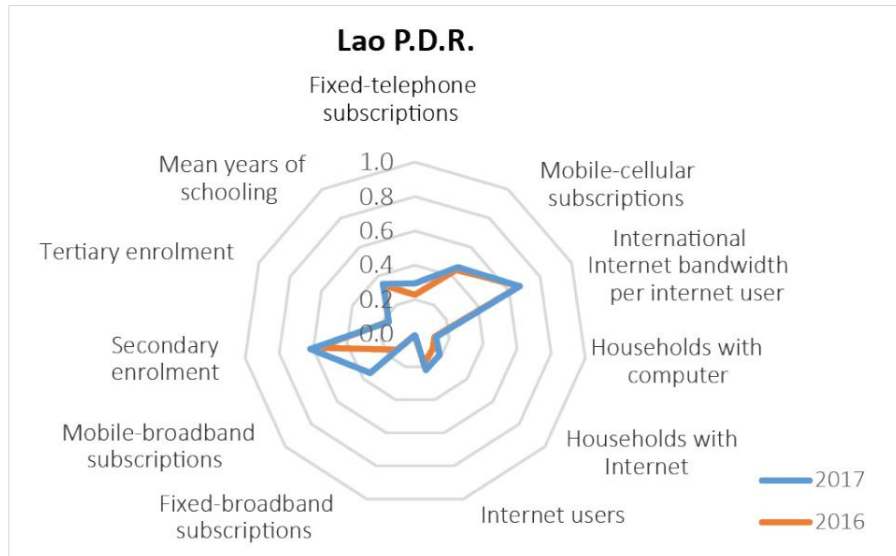
다음 <표 1>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34개 지역 중 IDI 상위 2개국(한국, 홍콩)과 하위 2개국(솔로몬, 아프가니스탄) 및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IDI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 아시아·태평양 지역 IDI 현황 비교(2017년)

구분	통합	접근성(Access)	이용도(Use)	활용능력(Skills)
한국	8.85(2위)	8.85(7위)	8.71(4위)	9.15(2위)
홍콩	8.61(6위)	9.22(3위)	8.21(10위)	8.19(32위)
말레이시아	6.38(63위)	6.93(62위)	6.17(48위)	5.70(101위)
태국	5.67(78위)	5.48(91위)	5.33(68위)	6.72(70위)
중국	5.60(80위)	5.58(89위)	5.27(69위)	6.28(61위)
필리핀	4.67(101위)	4.87(104위)	3.70(99위)	6.20(86위)
베트남	4.43(108위)	4.75(108위)	3.65(102위)	5.31(113위)
인도네시아	4.33(111위)	4.85(105위)	3.19(115위)	5.54(109위)
캄보디아	3.28(128위)	4.16(124위)	2.56(119위)	2.98(150위)
미얀마	3.00(135위)	3.48(139위)	2.43(121위)	3.21(146위)
라오스	2.91(139위)	3.47(140위)	1.90(132위)	3.78(136위)
네팔	2.88(140위)	3.62(136위)	1.73(141위)	3.73(137위)
방글라데시	2.53(147위)	3.05(147위)	1.41(149위)	3.72(138위)
솔로몬	2.11(157위)	2.81(152위)	0.81(163위)	3.33(144위)
아프가니스탄	1.95(159위)	2.56(160위)	0.83(160위)	2.94(152위)
아태 국가 평균 (34개국)	4.83	5.27	3.99	5.65
전 세계 평균 (175개국)	5.21	5.59	4.26	5.85

자료: ITU(2017), 저자 재구성

[그림 1] 라오스 IDI 세부 지표(2016년과 2017년 비교)



자료: ITU(2017), 저자 재구성

위에 제시된 [그림 1]은 라오스 IDI 세부 지표로, 이를 통해 변화된 라오스의 ICT 발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라오스의 모바일 통신 가입자 수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6년 대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수 당 국제적 인터넷 대역폭 수치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모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른 지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인터넷 사용자 수와 가구당 인터넷 보급률은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에서 2016년 대비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ICT 시장 현황

라오스는 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저개발된 모바일 시장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제외하고 모바일 보급률,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

및 전체 모바일 시장의 3G/4G 비율이 인접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최근 라오스 통신 시장은 많은 수의 사업자들에 의한 공격적인 캠페인으로 인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태이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주로 저비용 선불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우수한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발전은 더딘 편이다.

모바일 시장은 2017년도에 368,000명의 가입자가 추가되어 총 약 534만 명의 가입자와 약 10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시장으로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통신 사업자는 유선 인프라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거의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브로드밴드 통신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인 LTC社와 Unitel社는 최근 라오스의 주요 지역에서 4G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했다. LTC社는 네트워크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Nokia Shanghai Bell社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는 2G, 3G 및 4G 확장은 물론, 5G, NB-IoT, VR,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포함되어 있다. Unitel社는 비엔티안 및 Avannakhet, Luang Prabang 및 Champasak을 포함한 여러 주요 도시 및 지방에서 LTE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4,623 개의 기지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1,080대를 추가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통신 분야에 있어 접경 국가들의 라오스 시장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최근, 중국의 Comba Telecom社는 라오스의 ETL社 지분 51%를 인수했다. 베트남의 VNPT-I社⁴⁾는 수도 비엔티안에 대표 사무소를 개설하고, 라오스 통신 사업자 Sky Telecom社 및 Planet ISP社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무소는 VNPT 제품 및 서비스를 해당 지역의 자회사 제품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4) The 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Group International

〈표 2〉 라오스 ICT 시장 현황

구분		2016	2017e	2018f	2019f	2020f	2021f
유선 (Fixed Voice Subscribers)	회선 수 (천 개)	1,220.0	1,355.4	1,409.6	1,451.9	1,481.0	1,495.8
	100명당 회선 수 (개)	18.1	19.8	20.2	20.7	20.6	20.3
모바일 (Mobile Phone Subscribers)	가입자 수 (천 명)	5,988.0	7,125.7	7,446.4	7,684.7	7,896.0	8,069.7
	100명당 가입자 수(명)	88.6	103.9	107.0	108.8	110.2	111.1
3G	가입자 수 (천 명)	3,463.4	3,930.9	4,532.4	5,176.0	5,571.9	5,973.1
	모바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57.8	55.2	60.9	70.6	74.0	77.8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 (천 명)	413.4	475.4	522.9	559.5	581.9	587.7
	100명당 가입자 수(명)	6.1	6.9	7.5	8.1	8.1	8.0

e/f: BMI estimate/forecast

자료: BMI(2018), 저자 재정리

〈표 3〉 라오스 시장 SWOT 분석

강 점(S)	약 점(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 •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률의 꾸준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서비스에 대한 낮은 수요는 장기적으로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에 영향을 미침 • 여전히 라오스 국민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비싸며, 단기적으로 브로드밴드 성장 가능성은 비현실적임 • 3G/4G 이용 증가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음

기 회(O)	위 험(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통신기술에 수용적인 젊은 인구 수가 많음 • 브로드밴드 침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브로드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측됨 • 4G 도입을 통해 가입자당 평균 수익(ARPU)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적인 모바일 시장은 유선 시장의 장기적·가속화된 추락을 야기할 수 있음 • 낮은 문해율 및 1인당 GDP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에 한계를 줌

자료: BMI(2018), 저자 재구성

〈표 4〉 라오스 통신 사업자 현황

	사업자명	서비스
1	Lao Telecom Co (LTC)	- PSTN - 2.5G (GSM 900/1800, GPRS) - 3.5G (HSDPA) - 4G-LTE (FDD) - ISP (xDSL, FTTx, Leased Line)
2	ETL Company Limited (ETL)	- PSTN, - 2.5G (GSM 900/1800, GPRS) - 3.5G (HSDPA) - ISP (xDSL, FTTx, Leased Line)
3	Star Telecom Lao (STL, Unitel)	- PSTN - 2.5G (GSM 900/1800, GPRS) - 3.5G (HSDPA) - 4G-LTE (FDD) - ISP (xDSL, FTTx, Leased Line)
4	VimpelCom Lao (VLL, Beeline)	- 2.5G (GSM 900/1800, GPRS) - 3G (HSDPA) - ISP (WiMax, FTTx)
5	Sky Telecom State Co	- PSTN (IP-Phone) - ISP (xDSL, FTTx, Leased Line) - DPLC, IPLC, Dark Fiber - IPTV, IDC
6	Planet Online	- ISP (WiMax)

자료: MPT(2018)

1) 라오스 모바일(이동통신) 시장 현황

라오스의 모바일 시장은 많은 사업자 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비해 저발전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MI에 따르면, 라오스의 모바일 시장의 예상되는 가입자 수는 2017년에는 712만 명, 2020년까지는 약 789만 명 정도이다. 그러나 저발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의 배경으로는 LTC社와 Unitel社의 4G 네트워크 출시와 데이터 소비 증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 제공 업체에 상당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통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요소로 여겨지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2008년 말, 중국 Huawei社의 지원을 통해 LTC社가 라오스 최초로 3G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2010년 10월, 경쟁사인 Unitel社 또한 3G 서비스를 출시했고 ETL社와 Beeline社도 2011년 9월, 11월에 각각 3G 서비스를 시작했다. 4개 사업자 모두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시장 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3G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라오스 내 연결성이 개선되고 모바일 시장의 인프라가 크게 발전하였다. 향후에도, 3G/4G 세그먼트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3G/4G 가입자 수는 2017년에는 446만 명, 2021년 말에는 538만 명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라오스 모바일 시장 점유율('17년 12월)

사업자명	가입자 수(천 명)	시장 점유율(%)
Unitel	4,175	57.16
Lao Telecommunications Company(LTC)	2,085	28.55
ETL	692	9.47
Beeline(VimpelCom)	352	4.82

자료: BMI(2018), 저자 재구성

현재 라오스의 주요 이동통신사는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개 사업자로, 정부는 각 이동통신사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 현재 Unitel社가 시장 점유율 57.16%로 모바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LTC社(28.55%), ETL社(9.47%), Beeline社(VimpelCom, 4.82%)가 차례로 잇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표 6〉 참조). 4위를 차지하고 있는 Beeline社(VimpelCom)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한 가입자 손실을 보이고 있어, 이후 모바일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BMI는 그러한 전환이 라오스 모바일 시장에서 쉽게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3개 사업자 경쟁 구도로 바뀌게 될 경우 생존한 사업자들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라오스의 모바일 시장은 저가의 선불 모바일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러한 특징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인센티브를 낮춰 라오스의 통신 시장이 발달하는 데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저가 선불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사업자들이 스펙트럼 및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라오스 유선통신·브로드밴드 시장 현황

라오스 유선 음성 및 브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투자는 최근의 모바일 대체 현상으로 인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대비 2017년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장기적으로 그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룬다. 실제로 2021년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149만 명 정도로 예상되면서, 모바일 가입자 수와 상반되는 느린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1년까지 라오스 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또한 58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WiMAX 및 LTE와 같은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의 도입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확장할수록 통신 비용이 저렴해짐으로 보급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상당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고정 인프라를 구현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절감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하다는 이점 또한 존재한다. 이로 인해, 통신 사업자들이 유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선 시장의 한계는 고성능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주요 전달 플랫폼인 xDSL 서비스가 구리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광섬유와 같은 대안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BMI는 유선 브로드밴드가 중장기적으로 대량 시장(mass market)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비관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고, 유선 브로드밴드의 적은 가입자 수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라오스의 인터넷 시장은 2014년 약 14만 명의 가입자 수를 기록했으며, 이 중 약 90%가 주요 기술로 3G dongles(동글)을 사용했다. 라오스에는 12개의 사업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9개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상위 5개의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LTC社, ETL社, Planet Online社, Unitel社, Beeline社이다. LTC社와 Unitel社는 해당 영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자이며, 이 두 사업자는 ADSL 및 전용 회선을 기반으로 전화 접속 및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Unitel社는 이 중에서도 50%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된 유선 통신 및 브로드밴드 시장의 둔화 성장 추세는 라오스의 인터넷 사용자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라오스 내 인터넷 사용자 대다수는 관공서와 같은 직장 및 인터넷 카페 등의 공용 시설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대학 내에도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만, 행정적 목적으로 사용될 뿐 연구 목적이나 일반적인 사용을 불가능한 경향이 강하다. 또한, 대다수의 라오스 고객들에게 PC 및 노트북의 가격과 인터넷 연결 비용은 비싼 가격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 도시 지역을 벗어날 경우 인터넷 접속 인프라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도 제약 요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들도 불구하고 도시의 교육 수준이 높은 청년층에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부문이 유선 서비스를 대체할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의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BMI는 이러한 성장을 지속 및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및 기업의 수요를 촉진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및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부의 이니셔티브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3. 對라오스 ICT ODA 국제 동향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탈출을 목표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OECD DAC 회원국 등의 국제원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對라오스 ODA 공여국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원조전담기관인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 전문가와 봉사단원을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등의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일본 기업의 라오스 진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對라오스 ODA 공여국 1위로 자리매김하였고, 對라오스 타 공여국의 ODA 지원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선진공여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對라오스 ODA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라오스가 국제원조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對라오스 전체 ODA 비중에서 ICT ODA 비중은 미미한 편이나, 한국의 ICT 분야 ODA는 전체 공여국 중에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한국의 對라오스 ICT ODA 사업의 일환으로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에 라오스에 정책자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5) OECD CRS 홈페이지(<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8. 7. 1)

4. 결 어

본고에서는 라오스의 ICT 환경을 모바일(이동통신), 유선통신 및 브로드밴드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관련 동향과 對라오스 ODA 국제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IT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통신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의 인터넷 이용률은 단기간에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의 인터넷 속도 향상 등 ICT 인프라 구축에 대한 높은 의지를 통해 향후 라오스의 ICT 산업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최빈국 탈출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8차 2016~2020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의 국가발전전략을 설정하여 ICT 분야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다변화로 인한 신남방정책으로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와 한국 정부의 관계기관 간 원조 협업을 통해 對라오스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내에서는 최근 자체적으로 ICT 분야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으며 자체적인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라오스 내에서 배달서비스 뿐 아니라 핀테크 스타트업 KIWI, 코워킹 스페이스 TOH-LAO 등이 점차 라오스인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이는 라오스가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에 의존해오던 발전 방식에서 점차 자발적 발전 방식이 라오스 내에 문화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ICT 인프라 구축이 강화된다면 발전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참고문헌

- 글로벌ICT포털(GIP) (2018), 『국가별 정보통신방송 현황 2017 - 라오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김나연·유성훈 (2018), “아프리카 ICT 주요 현안: 스마트아프리카연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30권 10호 통권 67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수민·유성훈 (2017),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3. 페루 ICT 환경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23호 통권 66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수민·유성훈 (2017),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5호 통권 64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세라·유성훈 (2017),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2. 미얀마 ICT 환경 분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8호 통권 64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2018. 2. 26),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라오스는 180개국 중 135위”, http://overseas.mofa.go.kr/la-ko/brd/m_20322/view.do?seq=34.
- KOTRA (2017), 『KOTRA 국가정보: 라오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2017), 『라오스 비엔티안 출장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2015), 『KOTRA 국가정보: 라오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BMI Research (2018). “Cambodia, Laos and Myanmar Telecommunications Report Q2 2018: Includes 10-Year Forecasts to 2027.”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esearch.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ITU) (2017).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Report 2017: Volume 1.” ITU.
-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of Laos(MPT) (2018). “ICT and Broadcasting Development in Lao PDR.” 2nd Workshop on Policy Consultation to Promot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Service in Lao PDR. Vientiane: MPT&KISDI.
- KOTRA 국가정보: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4>(검색일: 2018.6.15).
- OECD 통계: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18. 7. 1).